



THE UNITED

MONTHLY MAGAZINE

2018.04 / 제2호



2018 SEASON

2018시즌 경기일정
2018시즌 선수명단

KEY PLAYER INTERVIEW

아길라르,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ROOKIE INTERVIEW

김덕중, "팬들에게 빨리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TRAINING TIP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 발목 염좌



INCHEON UNITED MATCH SCHEDULE

03월 03일(토) 16:00	2 강원 : 인천 1	춘천송암	07월 28일(토) 19:00	전남 : 인천 0	광양축구전용
03월 10일(토) 14:00	3 인천 : 전북 2	인천축구전용	08월 04일(토) 19:00	인천 : 포항 0	인천축구전용
03월 17일(토) 14:00	0 인천 : 대구 0	인천축구전용	08월 11일(토) 19:00	대구 : 인천 0	대구스타디움
04월 01일(일) 14:00	1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8월 15일(수) 19:30	인천 : 상주 0	인천축구전용
04월 07일(토) 14:00	인천 : 전남 0	인천축구전용	08월 19일(일) 19:00	강원 : 인천 0	춘천송암
04월 11일(수) 19:30	인천 : 상주 0	인천축구전용	08월 22일(수) 19:30	인천 : 전남 0	인천축구전용
04월 14일(토) 16:00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08월 25일(토) 19:00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04월 22일(일) 16:00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09월 02일(일) 18:00	인천 : 울산 0	인천축구전용
04월 25일(수) 19:30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	09월 15일(토) 16:00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04월 29일(일) 16:00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09월 22일(토) 14:0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05월 02일(수) 19:3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09월 26일(수) 16:00	서울 : 인천 0	서울월드컵
05월 05일(토) 14:00	인천 : 제주 0	인천축구전용	09월 30일(일) 16:00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05월 13일(일) 14:00	상주 : 인천 0	상주시민	10월 06일(토) 14:00	대구 : 인천 0	대구스타디움
05월 20일(일) 14:00	인천 : 울산 0	인천축구전용	10월 20일(토) 14:00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07월 07일(토) 19:00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07월 11일(수) 19:30	인천 : 강원 0	인천축구전용			
07월 14일(토) 19:00	경남 : 인천 0	창원축구센터			
07월 18일(수) 19:30	수원 : 인천 0	수원월드컵			
07월 22일(일) 18:00	인천 : 서울 0	인천축구전용			

※상기 일정은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www.incheonutd.com)를 통해 추가 및 변경되는 경기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K리그 1(클래식) 스플릿 라운드 경기 일정은
10월 이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FA컵 경기 일정은 7월 중 개최 될 예정이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INCHEON UNITED

2018 SQUAD

이기형 HEAD COACH	박성철 COACH	임중용 COACH	권찬수 GK COACH	자스민 COACH	이승재 AT ATHLETIC TRAINER	이동원 AT ATHLETIC TRAINER
김현진 AT ATHLETIC TRAINER	1 정산 GOALKEEPER	21 이진형 GOALKEEPER	31 이태희 GOALKEEPER	2 노성민 DEFENDER	3 김용환 DEFENDER	5 강지용 DEFENDER
6 최종환 DEFENDER	15 김대중 DEFENDER	16 이윤표 DEFENDER	20 부노자 DEFENDER	26 곽해성 DEFENDER	32 명성준 DEFENDER	33 정원영 DEFENDER
44 김정호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4 한석종 MIDFIELDER	8 이정빈 MIDFIELDER	14 윤상호 MIDFIELDER	17 고슬기 MIDFIELDER	18 박종진 MIDFIELDER
22 김동석 MIDFIELDER	24 이우혁 MIDFIELDER	25 김석호 MIDFIELDER	39 임은수 MIDFIELDER	40 최범경 MIDFIELDER	7 송시우 FORWARD	9 무고사 FORWARD
10 아길라르 FORWARD	11 박용지 FORWARD	13 김진야 FORWARD	19 쿠비 MIDFIELDER	23 김덕중 MIDFIELDER	27 문선민 FORWARD	28 이효균 FORWARD
29 김보섭 FORWARD	30 김혁중 FORWARD	36 김대경 FORWARD	37 이호석 MIDFIELDER			



이승재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꿀! TIP!

발목 염좌

- ‘빼끗한’ 발목 방지하다 무릎, 골반, 허리까지 ‘빼끗’하게 된다”



슬슬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로 나가 운동,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 이 늘어나고 있다. 겨울 동안에 낮은 기온으로 근육은 수축되어있으며 각 관절은 부위마다 굳어져있을 것이다. 몸이 둔해져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스포츠부상의 위험이 크다.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간 인천유나이티드 의무트레이너로 일해오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선수들의 부상 부위는 어딜까? 수없이 다양한 부상선수들을 만나왔지만, 망설임 없이 바로 발목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발목부상은 흔하다. 생활스포츠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목을 접질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하이힐의 높은 구두 굽이 신체구조학적으로 발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발목을 더욱 쉽게 빼끗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발목이 ‘접질린다’ 혹은 ‘빼끗했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발목 염좌”라고 한다.

발목 염좌는 우리 발목의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 움직임에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인대의 손상을 의미한다. 손상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인대가 늘어났다거나 부분파열 되었다, 혹은 완전파열 되었다’고 분류

한다. 대개 일반인들은 발목염좌를 가벼운 통증으로 여겨 파스를 붙이거나 단순 방지하는 정도로 남겨둔다.

하지만, 우리 선수트레이너들은 선수들의 발목염좌 부상을 단순한 부상으로 여겨 간단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하는 스포츠손상 부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대 손상정도가 미미하다고 해도 한번 인대가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없어 이전만큼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해주지 못해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발목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붓기와 통증이 남아 있게 되면,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좌, 우측 발목의 정렬이 불균형하게된다. 이는 무릎, 골반, 허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의 정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선수트레이너들은 발목염좌 부상이 발생한 선수를 신속한 응급처치 후, 스트레칭에서부터 상시 훈련-경기 전 테이핑 실시, 재활운동까지 선수 컨디션 및 부상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쓴다.

발목 염좌시 응급 처치 방법



P (Protection, 보호)



R (Rest, 휴식)



I (Ice, 냉찜질)



C (Compression, 압박)



E (Elevation, 거상)

다음의 경우 발목염좌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5가지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1. 테이핑이나 발목깁스 혹은 Brace를 통해 발목자체를 보호해줍니다.
2.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환부에 통증을 가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3. 환부에 얼음찜질을 10-15분 실시 후 20분 간격 혹은 냉기가 빠진 후 다시 냉찜질을 반복합니다. (48-72시간 까지)
4. 압박붕대를 통해 환부에서 5cm 위 아래 부분 까지 압박해 줍니다.
5. 심장보다 환부를 높게 위치시킵니다. 수면 시 다리에 베개(Pillow)를 올려 두고 취침합니다.



1 발목 스트레칭 운동

스트레칭 효과 /발목 스트레칭은 발목의 기동성을 높이고 유연하게 하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벽을 이용한 발목 스트레칭

무릎을 펴고 종아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 무릎을 구부리고 종아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2 발목 운동

벽에 손바닥을 대고 발 뒷굽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 운동



#3 밸런스 운동

한쪽 다리로 몸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사물 지지) 다리를 접었다가 천천히 펴면서 몸이 T자가 되도록 몸 안쪽으로 균형잡기 운동



2 발목 강화 운동 및 스트레칭

집에서 밴드 또는 수건을 활용해 간단하게 발목을 스트레칭 및 운동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목을 잡아주는 근육들에 근력운동을 통해 느슨해진 발목에 안정성을 제공 해줄 수 있습니다.
(밴드 or 수건을 활용해서 발목을 스트레칭 or 저항감을 주어 발목운동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90도 각도를 이룰 수 있게 꺾어 주세요



발목 바깥쪽으로 당기기 / 발목 안쪽으로 당기기



3 키네시오 발목 테이핑 방법

케네시오 테이프만 있으면, 간단하게 집에서 누구나 테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1. 종아리와 발목이 90도 각도를 이룰 수 있게 꺾어 주세요.
2. 키네시오 중간부분의 접착부위를 떼어내서 뒤틀치부터 양쪽 복숭아뼈를 감싸도록 붙여줍니다.



3. 테이프의 중간 부분의 접착부위를 떼어내서 양쪽 복사뼈를 감싸도록 붙입니다.
4. 테이프 부착 시 발목 뒷부분에 부착 후, 잡아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타이트하게 붙입니다.



5. 테이프의 첫 부분의 접착부위를 떼어내서 이번에는 발목의 앞부분에 부착시켜 크게 한바퀴 돌려 발목 전체를 감싸 줍니다.
6. 테이프 부착 시 약간의 장력을 주어서 잡아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타이트하게 붙입니다.



7. 테이프 부착 시 약간의 장력을 주어서 잡아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타이트하게 붙이며 마무리 합니다!



이승재 트레이너와
모델로 참가한 쿠비 선수



INTERVIEW

아길라르,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올 시즌 인천유나이티드는 최근 몇 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는 ‘코스타리카 특급’ 아길라르다.

아길라르는 올 시즌 1년 임대로 인천 유니폼을 입으며 K리그 무대에 입문했다.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출격한 아길라르는 데뷔전이었던 2라운드 전북현대와의 홈개막전에서 클래스가 다른 활약을 선보이면서 팀의 3-2 승리에 일조했고 인천 팬들의 기대감은 증폭됐다.

이러한 아길라르의 활약을 필두로 올 시즌 인천은 잔류 그 이상을 목표로 힘찬 출항에 나섰다. 단기간에 빠른 적응을 보이며 단숨에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한 아길라르를 만나봤다.

직접 경험한 K리그…“굉장히 빠르고 우수하다”

인터뷰를 위해 마주한 아길라르에게 먼저 빠른 적응에 대한 비법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팀 동료를 비롯한 코칭스태프에서 먼저 다가와주며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줬다. 원 소속팀에서 계속 경기를 뛰다가 인천으로 왔기 때문에 컨디션의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길라르는 “그리고 시즌 초반에 전북이라는 강한 팀을 상대로 경기를 뛰게 되어 오히려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직접 경험해본 K리그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이에 대해 문자 그는 “우선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팬들의 열기도 매우 뜨겁다고 느꼈다”면서 “K리그 선수들 모두 빠르고 체력적으로 우수하며 프로다움이 느껴졌다”고 이야기했다.

아길라르와 경기 외적인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길라르는 “아침에는 주로 내가 요리해서 먹고, 저녁에는 외식을 자주 한다. 또한 주변 동료들이 종종 초대도 해줘 함께 식사를 하곤 한다”면서 “가장 잘 맞는 음식은 구워 먹는 고기이다.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위해 일부러 외식도 자주 하고 동료들과 식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인천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전했다.

내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 ‘등번호 10번’

아길라르는 전 소속팀에 이어 인천에서도 등번호 10번을 달고 경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그는 “등번호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내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10번을 고를 것”이라며 “10번이 주는 무게감과 책임감 등이 있어 플레이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인천 구단 SNS 계정을 보면 코스타리카 팬들의 많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멀리 아시아로 진출해서도 자국 팬들의 응원을 받는 비법에 대해 그는 “프로 선수로 첫 데뷔한 팀에서 계속 뛰었기에 아직까지도 팬들이 응원을 해주는 것 같다. 또한 한국이라는 (코스타리카에서) 생소한 나라에 진출을 하게 되니 호기심과 흥미가 생겨서 그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제는 인천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길라르다. 인천 팬들은 아길라르의 플레이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큰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아길라르는 “승패 이전에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열정을 비롯해 진정성 있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며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친구는 ‘넘버3 김용환’

같은 리그에서 팀을 옮겨도 적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아길라르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리그에서 도전에 나섰다. 어딜 가든 가장 적응하기 좋은 방법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그에게 호흡이 잘 맞고 친한 선수에 대해 문자 “넘버3(김용환)”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손짓 발짓을 비롯해 간단한 영어를 섞어가며 선수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 중 의사소통에 관해서는 “축구가 공용어”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전했다.

올 시즌 목표에 대해 문자 아길라르는 “인천이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여 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길라르는 “좋은 모습으로 많은 활약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 팬들이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서 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함께 전했다.



INCHEON
UNITED
아길라르
MIDFIELDER
1991년 11월 7일
174cm / 6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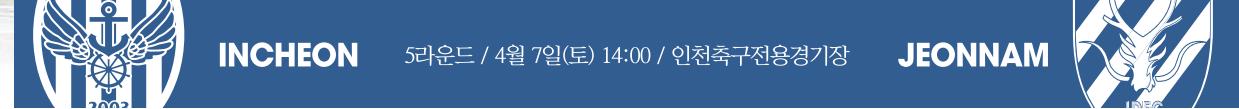
MATCH PREVIEW

“죽음의 레이스” 4월의 성적이 올 시즌을 판가름한다

K리그 1 팀에게 4월은 그야말로 죽음의 한 달이다. 각 팀 별로 최소 6경기에서 최대 7경기에 달하는 빠빠한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반면에 K리그 팬들에게 4월은 축구의 계절이다.

팀이 힘든 일정을 소화하는 만큼 수많은 경기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도 4월 인천의 경기를 맘껏 즐길 수 있다. 4월에는 총 4차례의 훈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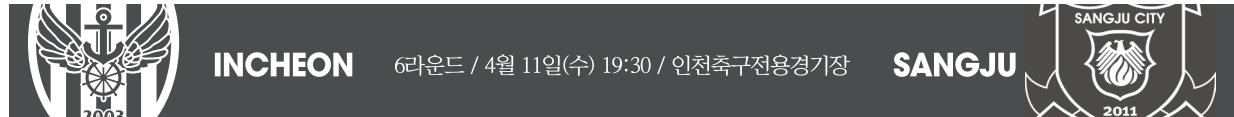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인천은 5라운드에 전남을 홈에서 만난다. 전남은 올해 유상철 감독 체제로 개편해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다. 전임 감독인 노상래 감독이 무게 중심을 뒤로 뺏으면, 유상철 감독은 무게 중심을 앞으로 두고, 전방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펼친다.

전남은 자일, 폐체신 등 지난 시즌 공격을 이끈 외국인 선수들을 정리하고, 마쎄도와 완델손이라는 새로운 공격수를 데려왔다. 중국 2부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태균도 전남에 합류했다. 과거 인천에서 뛰었던 박준태도 올해 전남에 합류해 주 공격자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남의 중원에는 유고비치와 한찬희가 있다. 이미 지난 시즌 호흡을 맞춰온 이들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번 시즌 전남의 공수를 지탱한다. 여기에 최재현, 박대한 등이 포지션 변경을 통해 주전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 2무 2패의 열세를 이겨내야만 하는 인천이다.



전남과의 훈경기가 끝나고 나흘 뒤 인천은 다시 한 번 훈경기를 치른다. 이번 상대는 상주다. 상주는 뒤승승한 분위기 속에 2018시즌에 돌입했다. 그러나 워낙 선수층 자체가 탄탄하기에 결단코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상대다. 체력 회복적인 부분이 승패를 좌우할 공산이 커 보인다.

상주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규다. 지난 시즌 17골을 넣어 득점 4위에 오른 주민규는 좋은 흐름을 올 시즌에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뛰어난 킬 실력을 자랑하는 윙쪽 풀백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결정력이 어우러진 김호남과 밭 빠른 김태환도 상주의 강점으로 꼽힌다.

수비진과 중원에도 쟁쟁한 선수가 많다. 임채민은 A대표팀 경력이 있을 만큼 좋은 선수다. 윤영선이 최근 전역하며 공백이 생겼지만 이미 새로운 조합을 실험하며 변화를 줬다. 그밖에 골키퍼 유상훈과 신세계, 여름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 경계가 필요하다.



INCHEON

8라운드 / 4월 22일(일) 16:00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SUWON



전남전과 상주전 홈 2연전을 치르고 제주원정을 다녀온 뒤 인천은 다시 수원과의 홈경기를 치른다. 수원은 주중(4/17)에 ACL 조별예선 6차전 가시마 원정경기를 치르고 인천원정에 나서게 된다. 회복 시간이 충분하긴 하나 체력적인 면에서는 인천이 수원에 앞설 가능성이 크다.

수원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다. 데얀과 염기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강력한 공격 조합에 이종성, 조성진, 광우선, 구자룡 등 안정적인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올 시즌 새롭게 영입된 임상협, 바그њ요, 이기제 등의 개인 기량도 매우 좋다.

수원의 약점은 주장 김은선의 부재다. 김은선은 부상으로 최소 5월은 되어 경기에 복귀할 수 있다. 중원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장으로써 팀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김은선의 공백은 수원에게 큰 약재다. 인천은 수원의 약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INCHEON

10라운드 / 4월 29일(일) 16:00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YEONGNAM



4월 인천의 마지막 홈경기는 경남전이다. 경남은 승격 팀임에도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조직적인 전술로 유명하다. 지난해 K리그 2 득점왕과 MVP를 동시에 수상한 공격수 말컹에, 올해 새로 들어온 네게바, 쿠니모토가 이루는 공격조합은 어느 팀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다.

이 세 외국인 선수가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에는 중원의 최영준의 역할도 크다. 왕성환 활동량으로 수비진 앞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플레이가 좋은 선수다. 그 외에도 하성민, 배기종, 권용현, 김신 등 중원과 측면에서 두루두루 외국인 트리오를 지원하는 선수들의 면면도 좋다.

경남의 수비진은 이재명-여성해-김현훈-우주성으로 구성된 포백에 손정현이 골문을 지키는 주전 라인업이 확고하다. 그밖에 지난해 승격 공신이자 대건고 출신의 센터백 박지수, 외국인 센터백 이반, 2016년 인천에서 뛰었던 조병국 등 좋은 기량을 갖춘 수비수도 보유하고 있다.



CLUB NEWS

인천 U-15 광성중, 제 38회 인천시축구협회장기 우승 …대건고는 준우승

인천유나이티드 U-15 광성중(감독 우성용)이 '제 38회 인천광역시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인천 광성중은 3월 28일 문학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 38회 인천광역시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인천시티FC U-15에 5-0 승리를 거두고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인천 대표로 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되었다.

이날 결승전에서 인천 광성중은 막강 화력을 아낌없이 과시했다. 전반 9분 김태형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 26분 이현석, 전반 30분 김승현, 전반 35분 유광근의 릴레이 득점포 가동에 힘입어 4-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다. 이후 이어진 후반전에서 후반 3분 유광근의 한 골을 더하며 이날 경기를 승리로 마쳤다.

이번 대회는 소년체전 인천대표 출전팀 선발전을 겸하여 진행됐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제 47회 소년체육대회' 인천대표 출전권을 따

낸 인천 광성중은 지난 2016년 이후 통산 2번째 소년체전 우승에 도전한다.

인천 광성중 우성용 감독은 "인천시협회장기 우승을 통해 인천 대표로 소년체전에 나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2016년에 이어 통산 2번째 소년체전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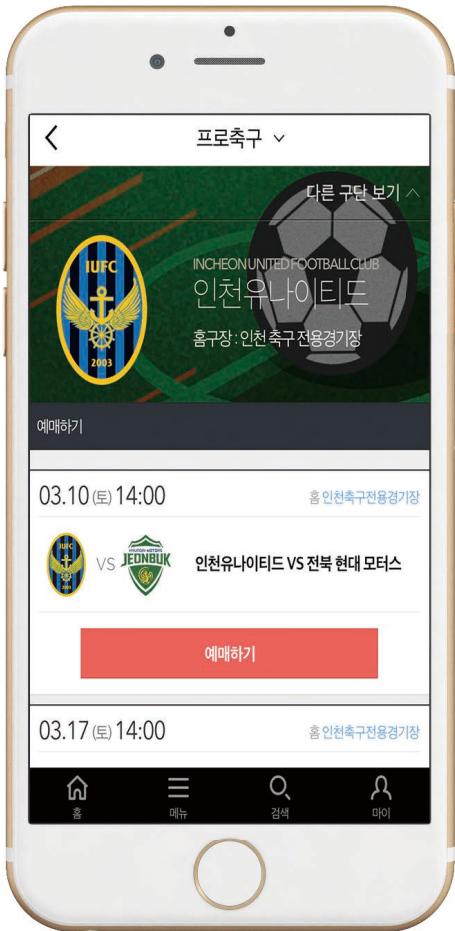
한편 인천 대건고는 결승전에서 부평고에 0-1로 석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초, 중등부와 달리 고등부는 추후 2차 선발전(6월 예정)을 다시 거쳐 '제 99회 전국체육대회' 인천대표 출전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인천 대건고는 2차 선발전을 통해 2013년 이후 5년 만의 전국체육대회 출전권 획득을 노릴 예정이다.



▲ 인천유나이티드 U-15 광성중이 '제 38회 인천광역시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우승 기념 사진



▼ 인천유나이티드 U-15 광성중 선수들이 인천시티 FC U-15 상대로 골을 기록한 후 즐거워하고 있다.



인터파크

모바일 티켓

INTERPARK
MOBILE TICKET

매표소 혼잡을 피하고 싶다면?

인터파크 모바일 티켓 APP을 다운받으면

입장권 발권 없이 입장 가능!



인천유나이티드 시민주주 정보 최신화 안내

인천유나이티드는 시민주주 정보 최신화 작업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및 연락처를 비롯한 주주 정보 수정을 비롯하여 주주카드 재발급 등과 관련한 문의는 인천유나이티드 경영기획팀(032-880-551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OKIE INTERVIEW

공격수 김덕중,
"팬들에게 빨리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공개테스트를 통해 김덕중을 영입했다. 포철고, 아주대를 거쳐 파검의 유니폼을 입게 된 김덕중은 다부진 체격과 성실함을 무기로 프로 데뷔를 노래하고 있다.

현 시점 본래 포지션인 윙어는 물론 풀백까지 양면에 걸쳐 이기형 감독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김덕중은 R리그 출전을 통해 경험을 쌓은 뒤 K리그 1 무대에 당당히 입성하기 위해 연신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UTD기자단이 만난 4월호 신인 인터뷰 주인공이 바로 김덕중이다.

박지성처럼 묵묵히 헌신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올 시즌 인천에 입단하게 된 23번 김덕중입니다”라는 짧은 자기소개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했다. 먼저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묻자 김덕중은 “능곡초 재학 중에 친구들과 축구하던 모습을 축구부 코치님께서 보시고 제안하셔서 시작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축구선수로 성장하면서 룰 모델을 바라보고 성장을 했을 터. 김덕중은 자신의 룰 모델이 다름 아닌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임을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메시, 호날두 등 화려한 선수들을 룰 모델로 삼았는데, 성장하면서 나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룰 모델로 삼게 되더라”면서 “그래서 현재의 룰 모델은 박지성 선수다. 그밖에 해외에서는 아자르를 꼽고 싶다”고 전했다.

“시우타임의 특급 조언” 프로 무대 적응 완료

“아마추어 무대와 많은 것이 바뀌어서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시작했다” 프로 무대 적응에 대한 질문에 대한 김덕중의 첫 대답이었다. 프로 무대는 확실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마 무대와는 많은 것이 다르다. “프로 무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동료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답을 이은 김덕중에게 누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줬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덕중은 “(송)시우형과 전지훈련 내내 같은 방을 썼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시우형한테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시우형이 내게 많은 것을 알려주려 하고, 조언이 될 만한 좋은 말을 많이 해줬다. 그런 모습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고 이어서 전했다.

차근차근 한 발씩…실수를 줄여나가려고 한다

아마추어에서 프로 무대로 올라오는 선수들은 언제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기와 훈련을 임하는 법. 이에 김덕중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항상 임하는지 물었다. 그는 “신인이다 보니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를 줄여나가려고 한다. 조그만 실수도 신인이 하면 더 커 보이고,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아 질 수 있기에 실수하는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시즌 전지훈련 연습경기에서 김덕중은 2득점 1도움이라는 공격 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솔직히 처음에는 ‘잘하자’보다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공격 포인트도 올리는 등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동계훈련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언젠가 기회는 올 것…맞불고 싶은 팀은 ‘포항’

김덕중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성실히 하다보면 언젠가 기회는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K리그 1 무대 데뷔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K리그 1 무대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팀에 대해 묻자 단 번에 “포항스틸러스”라고 답했다.

사연은 이렇다. 김덕중은 포철고 출신으로 포항의 우선지명을 받아 아주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포항의 부름을 받지 못해 우선지명이 풀렸고, 결과적으로 파검의 인천 유니폼을 입게 됐다. 그는 “포항을 상대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죽을힘을 다해 뛸 것이다. 그리고 포항 유스에 김덕중이라는 선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포항 팬들에게 각인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 팬들에게 빨리 뛰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번 시즌 목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그 이후에 출전 경기 수를 늘려나가면서 공격 포인트를 최소 5개 이상 기록하고 싶다”고 밝혔다. 축구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덕중은 “지난 3월에 있었던 홈경기를 모두 경기장에서 봤다. 경기장에 찾아온 인천 팬들이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셔서 선수들이 힘을 내고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거기에 보답하는 인천유나이티드 선수가 되겠다”고 팬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글 = 김건호 UTD기자 (rjsgh2233@hanmail.net)





오직 인천만을 위한 디자인

집업 트레이닝 블루(춘추용) 120,000원

집업 트레이닝 화이트(하계용) 100,000원

블루마켓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K LEAGUE 1



우리는 인천



ENTER THE ARENA BLUE WARRIORS

4/7 (토)
14:00
vs 전남



4/11 (수)
19:30
vs 상주



4/22 (일)
16:00
vs 수원



4/29 (일)
16:00
vs 경남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국철 도원역 / 수인선 송의역

(032) 880 - 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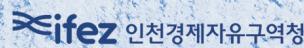
WWW.INCHEONUTD.COM



인천국제공항공사



신한은행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청





Premier Sponsor



인천광역시



Incheon Airport
인천국제공항공사



신한은행



ifez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삼천리



인천도시가스(주)



인천학주



kyungshin



CJU



보건복지부
인천금연지원센터



에몬스가구



MOM'S
TOUCH
CHICKEN & BURGER



인천항만공사
INCHEON ART AUTHORITY



인천도시공사



SEO WOON



인천지역본부



INU 인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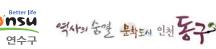
인하공업전문대학
INHA TECHNICAL COLLEGE



옹진군



연수구



역사와 숲길
봉화도서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부평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Official Partner



ArenaPark
CONVENTION CENTER



Arena Park
인천컨벤션센터



FORTIUM



DRSKIN



OLYMPUS
HOTEL



Holiday Inn
HOTEL IN INCHON



WEMBLEY
music sports play



Bebe water
나노 산소 수



GATORADE



하이트진로



THE HILL STORY
SPA & FITNESS



한국항공
Korean Air
항공우주
항공우주
항공우주
항공우주

발행일 2018년 04월 07일 / 발행처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9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천



블루카페는
E석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UFC
BLUE CAFE

500원
할인 쿠폰

*본 할인쿠폰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블루카페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LUE CAFE

올 시즌도 인천유나이티드는 E석 팬 라운지에서 블루카페를 운영 합니다. 블루카페에는 더로스터 리뮤즈가 입점하여 팬 여러분들께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합니다. 시즌권 제시시 'SIZE UP'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본 매거진 마지막장에 블루카페 500원 할인 쿠폰이 있으니, 인천 팬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